

대학과 교수의 위상회복을 위하여

“**한** 번 교수이면 영원한 교수인가.” 군대의 냄새가 풍기는 이러한 지적이 중앙일간지에 중견 언론인 명의 칼럼 제목으로 등장하는 현실이다. 문제의 본질을 회피 내지 간과한 내용의 피상성은 여기서 논의로 한다. 다만 이러한 말이 공공연하게 나와도 별 반론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현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교수라는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둔감성을 자책하여 본다.

우선 대학과 교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당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문과 예술을 분야별로 나누어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한 최고의 기관이다. 대학교수는 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고의 존재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 분야의 최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에 현장인력과 연구인력을 배출하며 연구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본질적인 존재의의이고 대학교수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각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의 최고인력이 최고인력의 재창출에 종사하지 않고, 각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다면 이는 그의 능력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그 인력 하나가 일을 직접 하는 것보다 그러한 최고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대학교수는 최고의 인력이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우수한 인력이 실무현장에 종사하고 그보다 못한 인력이 대학에서 인재양성의 일을 담당한다면 양성·배출되는 인재의 질은 점점 저하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과 대학교수는 최고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보자. 모든 대학은 과연 각 분야의 최고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대학교수는 과연 자기 분야의 최고 연구인 및 교육인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모두 긍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대학현실이 이러하기에 이른 것은 국가와 사회가 교수 내지 학자의 역할을 축소·왜곡시킨 데에 하나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학자는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국가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인류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 학자에게는 물질적인 반대급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우리 대학의 현실은 상당수의 최고인력이 대학이 아닌 실무현장으로 유출되게 하고 만다.



대구대 총장 조 기 섭

한편, 이러한 외재적 요인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내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정부와 법인은 과연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는 차치하고, 우리 대학인들이 사회가 기대하는 교수상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였는가를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불만토로가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여건을 탓하면서 연구와 교육에 소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형의 교수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와 교육에 소홀하여도 현실에 순응하기만 하면 생존할 수 있는 대학의 구조를 이용하여 교수가 취하여서는 아니 될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무능형의 교수가 대학 내에 있다는 것이다.

연구와 교육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교수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무능형의 교수가 대학사회에 잔존할 수 없는 제도와 풍토가 하루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중앙통제식 규율보다는 대학 또는 교수사회 자체의 자율적 통제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나 대학의 제도는 이에 실효성이 없었고 오직 교수 개인의 양심이라는 내적 강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내적 강제의 기능은 마비된 지 오래다. 이제 이 양심의 회복과 더불어 외적 강제의 도입이 필요해지고 있다. 교수의 전문성이 윤리성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하고 이처럼 외적 강제가 논의된다는 자체가 불행한 현실이지만, 교수가 대학 나아가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인자이기에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양심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문성이 없는 교수에 의하여 양성되는 인재는 결코 도덕적일 수 없는 것이다.

대학이 인성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훈련되는 지적 능력은 도덕적 순결성에 바탕해야 한다. 특히 근자에 물의를 빚은 소위 비공인 박사과 관련되어 증폭된 대학교수의 학문적 자질과 도덕적 순결성에 대한 사회의 회의적 시각을 바꾸어 놓을 만한 획기적인 조치와 자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학과 대학교수가 본래의 당위적 위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